

"성신여대 연극정말 대단하지 않았어?" 유정현(서울여자간호대 03학번) 학생이 상기된 표정으로 묻는다. "맞어. 불교의 사법법을 어찌하면 그렇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표현했을까? 그렇지만 너희 팀의 수화공연도 멋있었어." 강영욱(한양대 03학번) 학생이 웃으며 맞장구를 친다.

힘찬 대불련 "함께 만들어 가요"

서울지부 문화제 15개 대학서 100여명 참가

제1회 대불련 서울지부 문화제가 열린 11월 8일 상명대학교 소강당. 천진한 동자의 모습을 담은 포스터 사이사이로 싱그러움 웃음소리가 새어나온다. 그 웃음소리의 주인공들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서울지부 소속 서울대 서강대 홍익대 중앙대 덕성여대 건국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15개 대학 100여명의 학생들.

"이번 문화제는 그 동안 지회 안에 머물러 있던 대불련 활동을 지부차원으로 연계·확

자. 나뉘드린 쪽지에 가장 잘한 팀을 적어주세요."

사회자인 강지혜 서울지부장의 말에 강당안이 술렁인다.

"우리팀을 뽑을까?" "상품이 뭐래?"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모를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연이어 진행된 시상식. 우승인 자비상은 예상대로 불교의 사법법을 흥미진진하게 엮어낸 성신여대팀에게 돌아갔다. 이밖에 서울지부 문화부에게는 특별상이, 중앙대 조정현 학



◇성신여대 학생들이 불교의 모시, 애어, 이행, 동사 등의 사법법을 주제로 연극을 공연하고 있다.

사법법 주제 연극 성신여대팀 우승

"이런 행사 다른 지부로 확산 됐으면..."

장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입니다." 대불련 한승희 수석지도위원은 이같이 말하며 학생들의 문화공연을 돕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녔다.

"와~" "어머머~"

감탄이 연발해 나온다. 화려한 무대조명도 그럴싸한 의상도 갖춰지지는 못했지만 상관 없다. 축사위하는 친구들의 표정이 정겹고 실수해 당황하는 모습이 재미있기만 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승원(00학번) 학생의 장승과 중앙대 주정영(00학번) 학생의 검도시범은 여대생들의 마음을 뒤흔들며 놓이고, 성신여대 학생들의 연극공연과 서울여자간호대 학생들의 수화공연은 모든 학생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

생에게는 '나홀로상'이, 서울여자간호대팀에게는 '대단해오상'이 수여됐다.

"대불련 서울지부가 너무 부러워요. 오늘날은 자리가 다른 지부에도 빨리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김철우(인천대 99학번)

"16일 있을 창립제 준비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참가해 우승할겁니다.(웃음)" 이창현(건국대 03학번)

함께 모인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대불련 법우들. "함께 만드는 대불련이 됩시다." 그들의 마지막 외침은 대학불교 활성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발원으로 메아리쳤다.

김은경 기자 ipck@buddhapia.com

대불련 40년, 동문 찾기 캠페인

공동주관: 대불련 총동문회·대불련·현대불교신문사

전북지부 동문회

전북불교 이끄는 불퇴전의 청년불심



◇대불련 전북지부 동문회원과 가족들이 올 9월 남원 실상사에서 순례법회를 병행하고,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주군 위봉사를 아십니까? 지난 1972년 대불련 전북지부가 폐사 직전에서 구한 사찰입니다. 1973년에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수련도량으로 지정해 위봉사를 지켜냈지요."

대불련 전북지부가 1969년 창립 이후, 이 지역 불교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대불련 회원들은 구원팔 33교구 분사 중 하나였던 위봉사를 살리기 위해, 교대로 돌아가며 무너진 가람을 지켰다. 이뿐만이 아니다. 1982년에는 전북 청년불교회를 결성, 전북불교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현재 전북불교계가 대불련 전북지부를 '불퇴전의 청년불자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지부의 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987년에는 전북대 강건기 교수를 중심으로 재가불자 교육도량인 전북불교대학을 개교시켰다. 노종환, 최규갑, 전병영 등 전북지부 동문들이 대학 설립에 참여했고, 새로운 불교교육의 장을 열었다.

이 같은 전북지부의 노력은 2001년 출범한 전북대학생불교연합회 동문회에서 절정에 이른다. 문진 이유는 간단했다. 이제부터는 재학생 후배들에게

동문들 폐사 직전 위봉사 다시 일으켜

전북 불교대 설립 참여 교육의 장 열어

실질적인 후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전북지부 동문회 노종환 회장(전북대 67학번·전북관광협회 사무국장)은 "대불련 후배들이 살아야 한국불교가 살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동문회를 결성했다"며 "전북지부의 전통과 역사

를 잇고, 재학생 불교학생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후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동문회는 이를 위해 대학별·학원별 이사를 선임하는 한편, 매년 동문회의 밤을 개최 대불련활성화 기금을 조성해오고 있다. 또 정기적인 성지순례와 수련회도 개최했다. 2002년 6월에는 전주 정혜사에서 철야 정진 수련회를, 2003년 5월에는 무주 안국사에서 대불련 중흥을 위한 수련기도 법회를 병행했다.

동문회는 앞으로 체계적인 대불련 후원 기금 조성 차원에서 도입한 연회비 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배 동문을 중심으로 졸업생 취업청구를 마련하는 한편, 매년 열고 있는 동문회 밤을 선·후배들간 정보교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자랑스런 동문들



◇노종환 동문 ◇전병영 동문 ◇한광수 동문 ◇김성배 동문

노종환(전북대67학번·전북관광협회 사무국장), 최규갑(전북대67학번·광양산업 대표), 서경숙(간호67학번·전북대 병원 간호과장), 최이근(전북대71학번·천지스톤 대표), 전병영(전북대73학번·원광보건대 교수), 소순근(전북74학번·인행골프장 대표), 홍수기(전북대75학번·ym전북취재본부), 한광수(전북대75학번·우석대 교수 겸 전북불교대학 부학장), 백정규(전북대79학번·미래정보 대표), 조성후(전북대81학번·지원학원 원장), 김성배(전북대81학번·김제시의원), 서양숙(간호76학번·전북대학병원), 전경숙(간호77학번·신석보건진료소장), 김보은(간호69학번·원광대학병원 신경정신과) 등이 있다.

대불련 후원회원 됩시다

불자학생들을 돕고, 대학생 포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자 및 동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참여방법: 일시 후원 - 1구좌(1만원 이상) / 정기 후원 - 월1구좌 자동이체

▶문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02)732-0239, 739-0913

▶계좌번호: 국민은행 023-01-0565993, 농협 053-01-252868, 조흥은행 390-01-071917 (예금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후원금 배신 분

▲현대불교신문사 서춘건, 이승철, 김춘호, 엄윤정, 선정호, 김정태, 김종욱, 김학표, 이진성, 이해영, 정진기, 홍영승, 조용, 김경숙 등 1구좌

11월 13일 현재 총 2,843구좌

총동문회로 연락주세요

밤을 지새우며 구도열정을 불태우고 전국을 누비며 수행현장을 찾았던 대불련 활동 당시의 소중한 법우나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던 지도법사님, 세월의 간극을 넘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고 싶은 분은 간단한 사연과 연락처를 담아 본지나 대불련 총동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는 사연 중 채택된 원고는 본지에 소개될 예정이며, 본지와 총동문회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동원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www.buddhanews.com
대불련 총동문회
www.daeoul.or.kr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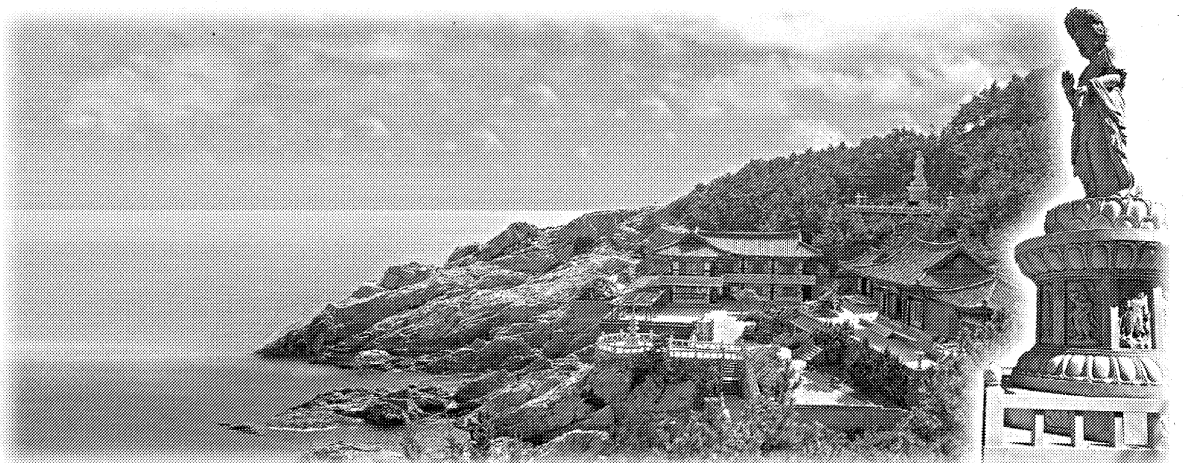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더욱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www.avatarcenter.co.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 대형 주차장 완비
- ◀ 입장료 무료
- ◀ 점심공양 가능
- ◀ 방생을 배달해 드립니다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

학월 경산대종사 열반 24주기 추모법회

淸淨比丘宗團 鶴月 24 淨化理念 修行宗團 家風 追慕法會
尊敬 參席 修行 佛事 仰望

- 일 시: 불기 2547년 11월 30일 (음력 11월 7일) 오전 11시
- 장 소: 적조암 대웅전
- 종무소: 02)924-5362

경산문도 대표 慈度
경산문도 회장 慈容
적조사 주지 慈成